

빈곤의 문제와 사회복지과제 그리고 교회의 역할: 신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교회역할에 주는 시사점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병덕 교수(5-4)

마태복음 26:11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신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많았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덜 관심을 가지는듯하게 들릴 수 있으나, 사실 예수님은 가장 경제·사회적으로 가장 낙후된 도시 중 하나인 나사렛 지방을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¹⁾ 복음증거와 함께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사역을 행하셨으며, 이러한 가르침은 오순절 이후 성령의 강림과 내주를 경험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한 복음전도의 삶 가운데서도 전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세 종교개혁자 칼빈에게서도 박해를 피해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경험하던 사람들과 교회 안팎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조직적 활동은 뚜렷하게 전개되었던 것을 볼 수 있으며²⁾, 결국 이러한 전통은 1600년대에 역사적인 국가주도 빈민법제정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근대 사회복지가 자선적인 봉사차원에서 국가보장법형태로 발전하게 된 근간이 되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신약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으며, 사회복지 실천의 주된 대상이 되고 교회의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배려 대상이다. 현대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규정할 때 기준은 대체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가 결핍한 상태’(O'Connor, 2000)에 있을 때 가난한 상태로 분류하는 통념을 가지고 있으나 그 기준은 절대적(객관적) 혹은 상대적(주관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대에는 국가마다 국가의 형편에 따라 가족이 연간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연수입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선을 정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요아킴 예레미아스(1998)에 의하면 기원전 63년 팔레스타인은 폼페이우스에 의해 로마의 식민지로 편입된 이후, 로마정권과 타협하여 생활하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사회적으로 혼란함 속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생활을 살고 있어 식민지배계층으로서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회주류계층으로부터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이 난무했던 당시 빈민계층은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복음의 대상은 부자와 빈민,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게 증거 되었으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던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이해 된다 (요아킴 예레미아스, 1998.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신약성서 시대의 사회경제사 연구,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철저한 봉건, 계급사회 속에서 빈자와 부자에 대한 차별이 뚜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층계급,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며(노예였던 오네시모에 대한 사도바울의 태도:빌레몬서 1:10; 골로새서 4:9) 오히려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교회적으로 노력했던 모습(고린도전서 16:1; 고린도후서 8:2)을 볼 수 있다.

2) 손병덕, 2009. 칼빈과 복지, ‘칼빈과 21세기’ (전광식 엮음), 서울: 부흥과 개혁사.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이웃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 받아 ‘자기 부인’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 모습이라고 하였으며 제네바에서 사회복지조직 ‘부루스 프랑세즈(Bourse Francaise)’를 세워 가난하고 병들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절대빈곤 가구로 선정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³⁾를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2008년 기준 전체 가구의 7.3%가 이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그 수는 1,529,939에 이른다(표1 참조). 시설 수급자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 전북 6.2%, 전남 6.0%, 경북 4.7%, 광주 4.3%, 강원 4.3%의 순이며, 울산이 가장 낮은 1.7%으로 나타나(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24) 지역적으로도 높은 편차가 있고 지역적 소외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현황을 보면 과반 수 이상이 1인 가구(61.5%, p.20)로서 독거가구에게서 가난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비율(단위:%)

수급가구별	소득집단별	2007	2008
비수급가구	전체	93.3	92.7
	저소득	77.3	75.2
	일반	99.2	99
수급가구	전체	6.7	7.3
	저소득	22.7	24.8
	일반	0.8	1
일반수급가구	전체	5	5.4
	저소득	18.2	19.4
	일반	0.2	0.3
조건부수급가구	전체	0.5	0.5
	저소득	1.3	1.9
	일반	0.2	0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	전체	1.1	1.3
	저소득	3	3.2
	일반	0.4	0.7
특례가구	전체	0.1	0.1
	저소득	0.2	0.2
	일반	0	0

3)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인정액 =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자활소득공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실제소득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A+B)×130%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B의 130%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있음	
B의 50%		재산특례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있음
0		(A+B)의 42%	(A+B)의 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부양능력의 판정방법)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수급가구는 일반수급 가구, 조건부수급가구,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 특례가구의 총합;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적용)

세계적으로 볼 때 가난의 형편은 더욱 심각해진다. 아프리카에서 하루 1달러 이하의 생계비로 연명하는 인구가 2억 9천 9백만 명에 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8억 7천 9백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와 같은 가난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표2 참조). 2010년 1월 기준 세계인구 68억 기준⁴⁾ 약 13%가 절대빈곤 상황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 2005년 기준 하루 1달러 이하의 생계비로 생활하는 인구 퍼센트(수, 백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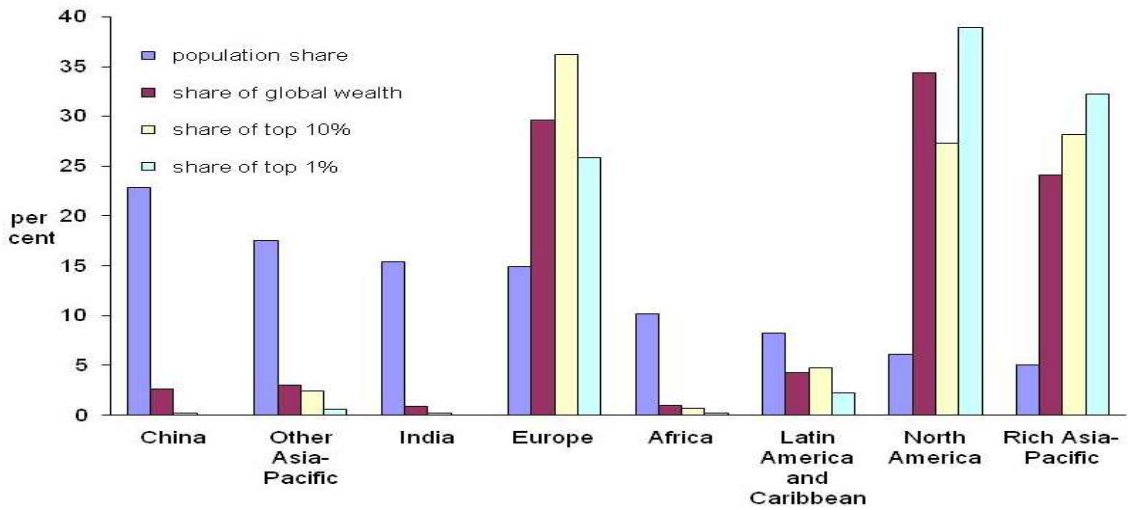
지역	1999	2002	2005
동아시아, 중국 태평양 연안	23.7	19.7	9.5(179.8)
동유럽, 중앙아시아	3.4	3.7	3.4(16.0)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해 연안	7.9	6.6	5.0(27.6)
중동, 북아프리카	2.6	2.0	2.0(6.2)
남부 아시아	26.9	26.5	23.7(350.3)
인디아	27.0	26.3	24.3(266.5)
아프리카	45.6	42.0	39.2(299.1)
평균(합계)	22.8	20.8	16.1(879.0)

(Chen & Ravallion, 2008:p.29).

나아가 가난과 부의 양극화 현상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로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나라 전체 부(富)를 유럽의 경우 25%이상, 북미와 아시아 OECD 국가의 경우 33%-38%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표3 참조), 이같은 문제가 축적된 결과 상위 10%에 속하는 부자들이 전체 세계 부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Davies et al., 2008, p.8).

4) wikipedia 세계인구 추정, 2010년 2월 24일: http://en.wikipedia.org/wiki/World_population

<표3> 부의 분배



(출처) Davies et al., 2008: p.10. The World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이와 같이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을 통한 국가적인 노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빈부의 양극화 현상 또한 깊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난의 문제는 국가적 노력과 투여가 필요하나 국가가 해결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개입을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고 기대된다. 교회의 원 목적이 단순히 사회적 문제해소에 있는 것은 아니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 하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의 역할을 생각할 때 가난의 문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고, 성경에 나타나는 가난과 이웃에 대한 이해와 개입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사회에서 여전히 상존하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하여 교회의 역할을 재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려 한다:

첫째, 가난의 문제를 보는 현대 사회 복지적 관점들은 무엇인가?

둘째, 성경에 나타나는 가난의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가난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천방향과 신약성경의 실천방법을 고려할 때, 현대 교회의 이웃에 대한 봉사관 및 실천방법과 연관하여 교회가 보다 사려 깊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가 있는가?

가난의 원인 해석에 대한 현대의 사회복지적 접근방향의 비판적 검토

가난의 원인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견해는 개인적 인성의 문제, 가난문화 고착화, 사회·정치·경제적 차별의 문제, 복합적 문제 등 대체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난의 원인에 대하여 개인적 인성의 문제로 보는 관점은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피동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아니하고, 창조적

으로 고민하여 보다 나은 삶을 체험하기 위하여 나은 선택을 하려는 시도에 매우 피동적이므로 결국 가난을 자초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부족을 비난하는 관점은 자수성가한 다수 중산층에게서 환영을 받는 견해로서 자신들이 평생 수고로이 노력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노숙자들 가운데 신체건강한 사람들이 많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탈피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여론화 될 때 더욱 쉽게 유포되는 경향이 있다. 청교도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경제대국을 이룬 미국의 경우 기독교가 중산층을 대표하고, 청교도적 신앙을 바탕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부조를 지속적으로 의지하려는 빈민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비판적인 관점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자신의 미래와 가족을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려 할 것이고,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초기 자본을 재투자하거나 더 나은 투자처를 찾는 등 자신의 복지를 극대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과 고등교육 등 자신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일을 매진하고 나은 직장을 찾아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이치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Alice O'Connor(2001)는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가난의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기보다 개인의 동기부족, 게으름, 적극적 참여 결여 등 개인적 자원결여가 문제라는 사실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난의 원인이 되는 개인적 동기부족, 게으름, 적극적 참여결여를 자극,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의 문제를 다름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구노력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문제의식을 스스로 가지도록 사회복지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가난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에서 있는데 만약 국가가 빈곤계층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정기간 이상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직업훈련 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학자들은 이와 같은 복지의존 상태가 습관적인 도덕적 해이현상을 가져와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국가가 방조하는 것이 된다고 보았다(Gwartney & McCaleb, 1985). Gwartney와 McCaleb(1985)의 연구는 이 같은 논리를 반증하기 위하여 ‘수입증가율 대비 사회복지 수혜자의 수혜비율 성장 비교’를 통해 미국 일반인들의 1965년 대비 1980년 수입 증가율이 41%에 그친 반면, 각종 복지프로그램 성장은 최소 53%에서 최대 361%까지 늘어난 것은 국가 부조 프로그램이 가난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실증적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표 4 참조).

<표4> 일반인들의 수입증가율 대비 사회복지 수혜자의 수혜비율 성장 비교

Program	Benefits Per Recipient		
	1965	1980	Increase(%)
Food Stamps	201	465	136.6
Medicare(Hospital)	319	981	207.4
Medicare(medical)	93	427	361.2
Social Security(Monthly)	221	339	53.6
Personal income	6246	8808	41.0

(출처) Gwartney & McCaleb, 1985: p.9

이상과 같은 사회적 여론과 실증적 연구들은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1996년 발효된 ‘개인적 책임과 취업기회 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PRWORA, Pub.L. 104-193, 110 Stat. 2105, enacted August 22, 1996)이 그것이다. 동 법안은 한 부모 가정을 위시한 빈곤층의 현금수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바우처 형태의 복지수혜를 받되 생애동안 수혜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며 수혜 시작 후 2년 내 취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현금수혜를 통한 복지혜택 의존 금지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의 부양의무를 담당하기 위한 취업 등의 노력을 실행하여야 하며, 한 부모 가정발생의 원인이 되는 혼외 출산을 억제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 이 모든 법제화 이면에는 가난의 원인을 개인적 문제로 해석하고, 가난을 고착화하는데 기여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면적 개편을 통하여 개인의 가난탈피를 위한 자구노력 투여에 동기부여를 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법안 실시 이후 그 효과성에 대한 조사(Freedman et al., 2001)는 사회복지 수혜대상자가 일부 줄어들고, 수혜대상 상당수가 법안의 목표대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안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가정이 가난탈피는 먼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분석해 내고 있어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개인적 인성의 문제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反-빈곤대책(Anti-poverty strategy)은 과히 성공적이지 않아 보인다.

가난의 원인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의 문화가 있어 가난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난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문제행동이 그들이 처한 현재의 가난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그와같이 문제시 되는 문제행동은 세대에 걸쳐 답습된다고 본다. 가난의 문화를 낳는 대표적 역기능적 요소들은 술·담배·마약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폭력행동, 반사회적(범죄)행동, 사회에 대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비관이 있는데 상술된 역기능적 요소들이 희망적 삶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며, 자신이 바로 피해자로 보고 사회환경을 비판하는 형태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빈곤 문화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하여 Oscar Lewis(1996)는 빈곤계층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난을 고착화 시키는 역기능적 가치관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된 역기능적 사고습관으로 인해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더욱 절망적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빈곤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이 가난의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그 가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여 가난한 사람으로 남기 쉽다는 것이다. Charles

Murray(1984)는 이와 관련하여 근대 복지대책은 가난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의 문화가 답습되도록 돕는데 기여한다고 비판하면서 가난의 문화를 단절하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난의 문화를 지적하는 관점은 가난의 문제를 개인적인 결핍의 문제로 보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문제는 세대 간 전의를 낳는 사회·문화적 악순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가난의 원인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빈곤문화퇴치를 주장하는 관점에서 시도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치관 개선,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청장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동기부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계층 아동들의 성장, 발달을 위한 단계적 개입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실시하는 드림스타트가 가난의 문화해소를 목적하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고,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⁶⁾가 청·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5) <드림스타트 사업 흐름도>

근로장려세제 신청조건	
총소득 요건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 18세 미만일 것(장애인은 제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가구
재산 요건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 포함)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단,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은 신청에서 제외됨(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eshome>)

6) 근로소득 지급액 산정

- 연간근로소득 800만원 이하 : 근로소득×15%

2009년 시작된 근로장려세제는 시행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이른감이 있지만 근로장려세제의 미래효과에 대한 예측 연구들은 근로장려세제 자체로는 근로의욕고취효과가 미미할 것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전영준, 2009). 반면에 빈곤계층에게 존재할 수 있는 가난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온 드림스타트는 빈곤계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적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

세 번째, 가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경제적 차별의 구조적 문제를 거론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주는 사회·경제적 차별의 구조적인 현상이 빈민의 주류사회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가난이 고착화되는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Issue화 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즉 고학력·고소득·사회주류 계층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저학력·저소득·사회 비주류 계층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사회적 소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사회적 병폐의 한 모습으로 각인되고 있다. 주류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여, 비주류 구성원들의 사회 진입이 원천적으로 원활하지 않도록 구조화 시키고 있는 사회적 소외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 Marx가 자본주의의 병폐를 거론하며 노동자, 농민과 같은 소외계층이 상류계층에 진입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 때 노동자, 농민은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극단적 논리를 전개한 바 있으나(Blackledge, 2006)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소외현상은 그 모습을 점점 드러내고 있다.

빈곤정책의 측면에서도 빈곤계층에 대한 구조적 소외현상은 지속되는데 예를 들어 생계유지를 넘지 않는 최소임금의 책정은 한 부모 가족을 위시한 빈곤계층의 경제적 위치 상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Jencks, 1996). 또한 저학력자들이 많은 빈곤계층이 고부가 가치 산업기술이 부족함으로 단순 일용직 혹은 생산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지위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나은 직장을 기대하기 힘들게 하여 경제적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Biddle, 2001).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은 빈곤계층이 접근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며,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확충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부시책의 하나⁸⁾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 연간근로소득 800 ~ 1200만원 : 120만원

- 연간근로소득 1,200 ~ 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24%

7) 드림스타트홈페이지: 서산시드림스타트센터 '큰 호응', 사교육비 절감 '드림스타트사업' 인기,

http://dreamstart.kr/board/board_view.asp?boardtype=2&idx=5530&intpage=1&keyfield=&keyword=

아동의 보건의료, 아동학대 예방등의 효과에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은정·노정미·김효진·임성은·방미란. 2008.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보건사회연구원).

8) 2009년 시작되어 2010년에 계속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한 예로 평가될 수 있다. 희망근로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10만개 지원 및 안정적 일자리 취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목적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주요 사업으로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집수리, 다문화 이민자 영어교사 활용 및 학습, 재취업지원 정비사업,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공공시

추진되어 왔으나 임금수준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마지막 네 번째 가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관점은 이상에서 거론한 개인적 결핍, 세대 간 전이를 낳는 가난의 문화, 사회·경제적 차별구조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생태적 접근이다. 가난의 원인을 어느 한 측면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가난은 개인의 특성, 가족 내부의 문제, 지역사회와 사회구조적인 문제 모두가 서로 상호 연관되어 발생하고, 문제가 축적되어 가난을 심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복지계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상

설물 개보수사업, 공공부분 정보화사업, 소기업건설현장 일자리창출사업 등이 포함된다(행정안전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http://www.mopas.go.kr/gpms/2010hope.html>)

2009년 사업성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효과

- ▶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들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
 - ※ 「희망근로 설문조사결과」, 대다수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효과가 큰 것으로 응답 (참여자 95.2%, 지역상인 75.0%, 담당공무원 82.9%)
 - ※ '09년 3/4분기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 동기 대비 5.51배에서 5.47배로 낮게 나타남(통계청 11.14)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

- ▶ 2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제위기 하 고용증대에 기여
 - ※ '09년 1~10월 고용동향(통계청)에 의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6월 이후 공공행정 부분의 취업자 대폭 증가

〈취업자 증감 (전년동월대비, 만명)〉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체 취업자	△10.3	△14.2	△19.5	△18.8	△21.9	0.4	△7.6	0.3	7.1	1.0
공공 행정부문	0.3	2.9	6.9	7.2	8.9	26.8	31.9	32.1	32.6	33.2

3 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상품권 유통(총 3,840억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 임금 중 일부(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기간을 3개월로 제한함으로써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 약 3,840억원의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통시장 상품권 10년간 총 판매액(2,440억원)의 약 1.6배에 달해 전통시장, 영세상인 활성화에 기여
 - ※ '09. 7월 전통시장 경기동향지수 연중 최고치(중기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체감지수	49.4p	44.7p	54.8p	61.9p	57.8p	55.5p	65.6p

▷ 「희망근로 설문조사결과」 희망근로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의견: 참여자(91.3%), 담당공무원(74.2%), 지역상인(71.0%)

4 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상품권 유통(총 3,840억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 임금 중 일부(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기간을 3개월로 제한함으로써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 약 3,840억원의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통시장 상품권 10년간 총 판매액(2,440억원)의 약 1.6배에 달해 전통시장, 영세상인 활성화에 기여
 - ※ '09. 7월 전통시장 경기동향지수 연중 최고치(중기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체감지수	49.4p	44.7p	54.8p	61.9p	57.8p	55.5p	65.6p

▷ 「희망근로 설문조사결과」 희망근로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의견: 참여자(91.3%), 담당공무원(74.2%), 지역상인(71.0%)

4 다양한 사업의 발굴·추진으로 대국민 행정수요 충족

- ▶ 전국 3만여개 사업장에서 지자체별로 146여종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주민수요 충족
 - ※ 친환경 녹색사업(폐기물 재활용사업,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진북), 갯벌속 오염물질 제거(대안), 다문화 결혼이민자 영어교사 활용 등
- ▶ 비영리법인·단체, 대학생 봉사단체의 자발적 참여, 근로참여자의 소외이웃 배움활동 등 국민통합 기능 수행
 - ※ 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 사랑의 쌀 전달(대전), 마을미술프로젝트·마을벽화그리기(대학생 자원봉사 단체참가), 공무원 성과상여금 반납 수혜지역 희망근로사업비로 사용(경기화성) 등
- ▶ 생활밀착형 친서민사업 시행으로 소외계층의 생활불편 해소
 -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1,368가구, 전국),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보일러, 장판, 도배, 도색 등), 달동네 보행로 개선사업, 희망교육 제작 저소득층 자녀 무료제공(대구) 등
- ▶ 재해예방, 주민편의 향상 및 예산절감
 - ※ 도심지 집수받이 및 배수로 준설사업(인천)
 - ※ 보도블록 재사용 교체사업(하남, 100억 예산 절감)
 - ※ 자전거도로 정비 및 영세기업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등

(출처) 행정안전부 2010 희망근로, http://www.mopas.go.kr/gpms/2010hope_30.html

호연계, 다차원적 접근, 학제 간 연구의 강조를 통하여 강조되는 방안으로서 문제의 원인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가족·사회적 문제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누적되고, 심화되는 빈곤문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면적인 접근으로 해결, 해소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발달을 고려할 때 가족과 같은 미시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처음 경험하고, 자라면서 보육시설, 학교와 같은 중간환경과 상호작용을, 부모의 직업 및 사회활동과 같은 외부환경을 통해 간접 상호작용 경험을, 그리고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거시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되어 개인의 특징이 구조화되고 사회생활의 대처능력을 발전시키게 됨으로 개인, 가족, 이웃과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발달론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방법이 가능해 진다고 본다(Bronfenbrenner, 1979).

따라서 가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생태론적 관점을 기초로 계획한다면 정책적으로는 영유아로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사회복지 실천대상의 특성을 고려하되 실질적 자립이 가능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정책을 입안하고 최대한 사회경제적인 차별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실천적으로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되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구체적인 자립의지를 도모하는 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정책은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공공부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함된다. 그러나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이 최저생활의 보장에 있으므로 자립생활의 구체적 도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희망플러스통장'⁹⁾이 생태학적 접근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최근 가동되었다.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는 개인의 생애 주기적 발달 특성 및 가족환경을 고려하는 사례 관리적 서비스가 이 같은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나는 부와 가난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법

구약성경에서 부는 노동의 대가(잠10:4)로 주어지는 일반은총인 동시에 신실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묘사되기도 하며(레26:3-5), 반면에 불의한 일을 행한 자가 얻

9) ① 희망플러스 통장의 신청자격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재산	71,656,295	84,063,417	92,891,583	101,719,748	110,547,878	119,376,043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금융재산(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 산정함
- 자영업자,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신청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저축 중도해지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참가자의 동일가구원, 「희망키움통장」 참가자,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 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파산면책결정자 및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면제중인 개인회생중인 자는 신청가능

②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수급 차(차)상위계층		비고
총 적립금(3년 후)	36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440만원 + 이자		매월 적립시
본인 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매칭 지원금은
매칭 지원금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시비와 서울사회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금으로 지원됨

은 부정한 것으로 부를 지적할 때도 있었다(사3:14-15). 구약성경에서 부가 성실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부하게 된 이유를 자신의 노력으로만 간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삶을 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예를들어, 자연적인 천재지변이나, 질병, 전쟁, 자신의 실수, 타인이 범한 실수와 사고 등 매우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성경은 개인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부한 자들은 자신의 부한 상태를 전적으로 자신이 노력한 결과로만 이해해서는 적절하지 않으며, 그 노력이 가능하게 된 것, 그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된 것,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시기적절하게 결과한 모든 인과성조차도 하나님의 축복¹⁰⁾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 믿음을 기반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정당한 부를 획득하려고 할 것이나, 자신의 노력과 그 열매가 자신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기에 가난한 자를 비난하려하기 보다 가난하고 측은한 그 상태를 불쌍하게 여길 것이고 적절한 도움을 통하여 지금의 형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구약성경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잠22:2),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 것을 당부하셨고(시82:4),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사10:2). 구약성경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사람에게 대한 가치관의 변혁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비록 타락한 존재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 것이다. 개인의 부와 가난을 근거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그 고귀함이 인정되어야 하고,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나아가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웃사랑을 베푸는 것이 믿는 자의 행할 도리로 말하고 있다.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대한다면 가난한 자의 고통을 신원하려 주려하며 고아와 과부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며 어떤 방법이 이들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이처럼 구약성경은 가난의 문제를 가진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부가 제자의 도를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막 10:17-31; 눅12:22-34), 동시에 교회와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원이 될 수 있음(행

10)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전혀 아니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근본적인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외하며 살게 하신 것이다(눅4: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2:44-47)을 말씀하여 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역할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뜻있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말씀하였다.

부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와 이웃을 돌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며 살려는 제자의 도를 행하는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¹¹⁾. 그러나 만약 부와 세상에 대한 1차적 집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거듭나는 경험을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는 강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을 체험한다면, 물질을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과 밖의 성도와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안에 살 수 있다. 실제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소유물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쓰여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사도들 앞에 내어 놓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행2:44-47).

교회에 주는 시사점과 실천과제

예수님 당시에 비하여 절대 빈곤층의 정도와 상황은 나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인구의 약 13%가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3%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난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계층의 삶의 개선을 위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조세정책을 통하여 마련된 세수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계대책뿐만 아니라 스스로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열매가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개선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지역사회 거주하는 빈곤계층의 곤궁한 삶의 형편을 직접 목격하는 교회가 이런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함께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구약성경이 빈곤층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과 고아·과부와 같은 불가피한 빈민을 위한 아낌없는 부조를 말씀하고, 신약성경에서 이웃에 대한 제자의 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교회 내의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들은 모두 교회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 내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의 곤궁한 형편을 적극적으로 돌아보되 부의 부당한 사용을 막고 가난을 이유로 사회구조적인 차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교회 안과 밖의 빈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의 실천을 결행하여야 하나(마5:42; 롬12:20), 가난한 자들을 사회의 차별과 소외로부

11) 초대교회 교부 Clemens Alexandrinus는 본문에 대한 해석에서 부에대한 집착과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없다고 하였다(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lemens Alexandrinus on the Salvation of the Rich Man, 'who is the rich man that shall be saved?' http://www.ccel.org/ccel/schaff/anf02.vi.v.html#_Mark_10_17_10_31). 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모든 관심을 두고,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산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을 쉽게 행할 수 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부가 하나님 나라에 쓰이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이요,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며(82:4), 교회는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을 담아(행2:44-47)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노력결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대교회에서 열두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이들에게 구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배려한 것처럼(행6:3), 교회 내 인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교회의 구제사역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역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가난에 대한 접근들 중 가난하게 된 책임을 개인에게 모두 묻는다든지,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예상하기 힘든, 불가피한 상황에서 빈곤상태에 이르게 되는 일도 있고 때로 차별적 모습도 현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가난의 모든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는 제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빈곤계층과 부유한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들로 보고, 현재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며,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무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내놓을 것을 강요하는 듯한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¹²⁾, 불쌍히 여기며¹³⁾, 그들의 형편을 실제로 돌아볼 것¹⁴⁾을 말씀하셨다. 거둬난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¹⁵⁾, 그리고 과거 불의한 삶을 돌이킨 증거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신의 노력에서 점검하도록 명령¹⁶⁾하신 것이다. 말씀을 근거하여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의 열심이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이다.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신 15:7-8)

13)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잠 19:17)

14) 기록된 바 그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후 9:9)

15)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갈 2:10)

16)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

참고문헌

- 강은정·노정미·김효진·임성은·방미란. 2008.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보건사회연구원
- 드림스타트홈페이지: 서산시드림스타트센터 '큰 호응', 사교육비 절감 '드림스타트사업' 인기,
http://dreamstart.kr/board/board_view.asp?boardtype=2&idx=5530&intpage=1&keyfield=&keyword=
=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team.mw.go.kr/blss/board/boardView.jsp?no=374&pg=1&search_content=&search_item=0&order=11&table_name=blss_data&menu_cd=B_02_05&menu_div=B_02&ctx=003
- 손병덕. (2009). 칼빈과 복지, '칼빈과 21세기' (전광식 엮음), 서울: 부흥과 개혁사.
- 요아킴 예레미아스. (1998).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신약성서 시대의 사회경제사 연구,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 전영준. (2009).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월간노동리뷰 2009년 8월호. 55-6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비율.
http://kosis.kr/OLAP/Analysis/stat_OLAP.jsp?tbl_id=DT_331N_A00001&org_id=331&vwcd=MT_ZTITLE&path=보건·사회·복지 > 복지 > 한국복지패널조사 > 가구 및 가구원 특성 &oper_YN=Y&item=&keyword=국민기초생활&lang_mode=kor&list_id=&olapYN=N
- 행정안전부 2010 희망근로, http://www.mopas.go.kr/gpms/2010hope_30.html
- Biddle, B. J. (2001). Social Class, Poverty, and Education. NY: RoutledgeFalmer.
- Blackledge, P. (2006). Reflections on the Marxist Theory of Histor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n, S. & Ravallion, M. (2008). The developing world is poorer than we thought, but no less successful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Development Research Group, World Bank, USA.
-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lemens Alexandrinus on the Salvation of the Rich Man, 'who is the rich man that shall be saved?'
http://www.ccel.org/ccel/schaff/anf02.vi.v.html#_Mark_10_17_10_31

Davies, J. B., Sandstrom, S., Shorrocks, A. & Wolff, E. N. (2008). The World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Freedman, S., Friedlander, D., Hamilton, G., Rock, J., Mitchell, M., Nudelman, J., Schweder, A. & Storto, L. (2000). Evaluating Alternative Welfare-to-Work Approaches: Two-Year Impacts for Eleven Program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

Jencks, C. (1996). Can we replace welfare with work? in M.R.Derby (ed), Reducing poverty in America (pp.69-81). Thousand Oaks: Sage.

Gwartney, J. & McCaleb, T. B. (1985). Have Antipoverty Programs Increased Poverty. Cato Journal 5(1), 1-16.

<http://www.cato.org/pubs/journal/cj5n1/cj5n1-1.pdf>

Lewis, O. (1998). The culture of poverty. Society 35 (2), 7-9. doi:10.1007/BF02838122

Murray, C. (1984). Losing Ground. New York: Basic.

O'Connor, A. (2001). Poverty Knowled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PRWORA, Pub.L. 104-193, 110 Stat. 2105, enacted August 22, 1996.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04:H.R.3734.ENR>: